스위스의 슬로프를 미끌어져 나가며...

썰매가 다시 쉬크한 트렌드로 돌아왔다. 생모리츠(St. Moritz)는 섬뜩한 봅슬레이 코스를 이용해 개인들에게 봅슬레이를 직접 타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용한 겨울과는 영영 이별을 고했다. 헬멧과 함께 파일럿과 브레이크맨이 함께 동승한다. 조용했던 곳들도 매끈한 얼음 표면을 준비하고 차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시저(Caesar)의 부대가 방패를 타고, 눈 덮인 줄리어 고개(Julier Pass)를 서둘러 내려온 데서 썰매가 기원했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엄청난 무게의 돌을 옮기는데 썰매를 이용했다고 믿는다. 누가 알겠는가? 수 세기 동안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썰매는 힘든 노동을 의미했다. 이 곳, 산에서 사는 이들은 목재, 식료품, 그리고 알프스를 지나는 여행자들을 실어 나를 때에만 사람이나 개, 노새가 끄는 썰매를 탔다. 썰매는 애들이나 타는 것이었다.

그러나 100여년 전, 영국 여행자들이 마을 꼬마들에게 나무로된 구식 썰매, 슐리텐(Schlitten)을 빌려 타면서 그 재미를 알아채 버렸다.

야외 운동은 산악 치료의 처방 중 하나였지만, 스키는 아직 발명되기 전이었고, 스케이트는 언 연못이 있어야만 탈 수 있었다. 1964년 올림픽 당시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낸 새로운 스포츠가 탄생한다.

다보스(Davos)를 찾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Robert Louis Stevenson)은 열정적으로 기록했다. "... 썰매를 타는 진정한 방법은 혼자서 밤에 타는 것이다. 먼저 소심함이 몰려오지만... 곧 몸을 밀어 내고, 썰매가 나아간다. 미끌어져 내리고, 헤엄을 치고, 솟아 오르다... 머리 위로 번쩍대며 별이 보일 지경이다. 전력을 다하게 되고, 이 때 즈음이면 썰매는 바람같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가게 된다. 반짝이는 계곡과 호텔의 아름다운 불빛이 발 아래로 펼쳐지고, 어금니를 꾹 깨물며 밤의 그림자 속으로 질주하며 터질듯한 심장 소리를 듣는다. 곧 호텔 문 앞의 길목에 도착하게 된다."

썰매를 타는 스위스 방식은 품위까지 느껴질 정도다. 앉은채로 발꿈치를 이용해 브레이크를 잡는다. 이방인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썰매를 모두 이어 붙이고 머리를 앞으로 한 채 썰매를 탔다. 이런 무모함이 1885년부터 생모리츠(St. Moritz)의 크레스타 런(Cresta Run)에서 열린 것과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 냈다. 뼈만 앙상한 선수들이 시속 140km 속도로 내려가는 장관을 연출한 것이다.

이런 아드레날릴 중독보다 위험은 덜 감수하면서도 스위스 알프스의 많은 언덕과 산에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헤밍웨이는 스위스에 여행하며 스위스의 눈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척 쉬운 것을 발견한다. 1920년대의 일어었는데, 세계대전 당시 앰뷸런스 기사로 일하다 군복무를 마치고, 그간 목격한 것들을 내려 놓고 '토론토 스타(The Toronto Star)'의 파리 주재 리포터로 향하던 그는 삶에 대한 충만한 열정과 얼마 안되는 예산 사이에서 허덕였다. 로잔(Lausaane)에서 열렸던 평화 협정을 취재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출장같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몽트뢰(Montreux) 위쪽에 있는 샹비(Chamby)의 저렴한 펜션을 빌려 묵기도 했다. '무기여 잘있거라'의 마지막 챕터에 묘사한대로 말이다. 이색적이면서도 안락한 펜션은 지금은 개인의 집이지만, 그 주변에는 B&B 민박이 많이 생겼다. 폭신한 이불과 창밖으로 펼쳐지는 호수와 알프스의 파노라마가 근사하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오프 피스트 스키어들과 서퍼들은 고지대의 리조트를 찾는 경향이 있지만, 이 지역에는 헤밍웨이가 즐겼던 야외 스포츠 중 하나인 썰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여유가 넘치는 매력이 흐른다. 팜플로나에서 황소와 뛰어다니거나 바다에서 낚시를 하거나,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는 것보다는 모험적이지 않지만 헤밍웨이는 스위스에서의 썰매타기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1922년 3월 18일자 토론토 스타 위클리(Toronto Star Weekly)에 기고한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루지(Luge: 한 사람이 타는 경주용 썰매)는 스위스 사람들의 싸구려 자동차나 다름없다. 햇살 맑은 일요일이면 꼬부랑 할머니부터 동네 꼬마들까지 스위스 전역에 있는 팬케잌 높이만한 판자에 앉아 얼굴에 긴장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가파른 산길을 따라 속도있게 내려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다리를 뻗어 썰매 앞 코에 대고 방향을 조절 하는데, 2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길이를 시속 30-40m는 족히 되어 보이는 속도로 내달린다."

지금은 산길마다 제설용 소금이 뿌려져 있어 썰매를 타고 내려오지는 못하지만 기차를 타면 루지를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안전하게 타볼 수 있는 루지 코스가 몽트뢰(Montreux) 근교의 레자방(Les Avants)에 있는데, 몽트뢰에서 출발하는 골든패스(GoldenPass) 파노라마 기차로도 갈 수 있다. 그슈타드(Gstaad)로 향하는 모피로 치장한 스키족들과 함께 파노라마 기차를 타 보는 것도 꽤 즐거운 추억이다. 레자방에 도착하면 따뜻하게 껴 입은 아이들과 그들의 할머니들이 오후 썰매를 즐기러 우르르 내리곤 한다. 십대들과 스위스의 미래의 봅슬레이 챔피언들은 눈발 날리는 밤, 조명을 밝힌 야간 썰매를 더 선호한다. 대부분의 스위스 가족들은 헤밍웨이가 '캐나다의 어린 여자애들이 타는 썰매'에 비교했던 '다보스(Davos)' 나무 썰매를 최고로 여긴다.

기차역에서는 몇 프랑만 내면 썰매를 대여할 수도 있다. 레자방에서 퓨니큘러를 이용해 종루(Sonloup)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레망(Léman) 호수의 파노라마가 한 눈에 들어온다.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즐기며 썰매를 지칠 수 있다.

참고자료: Petit Guide de la Suisse insolite/Made in Switzerland, Mavis Guinard, Metropolis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